

社說

부처님 생애 알아야 불자다

많은 불자들이 '불교는 어려운 종교'라는 말을 하고 있다. 불자가 아닌 사람들은 불교를 난해한 철학을 바탕으로 한 종교 한문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힘든 종교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과연 그런가? 불교는 참으로 쉬운 종교다. 생활 자체가 불교이기 때문이다.

물론 어렵다는 선입견이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다. 교리가 복잡한 것도 사실이고 수행 방법이 다양하고 수행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거기에 한자문화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황도 틀리지 않다.

그렇다면 결론은 불자나 불자 아닌 사람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데에 이른다. 어떤 길이 있을까? 부처님의 생애를 이해시키는 것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불교는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부처님 즉 석가모니에 의해 창시된 종교다. 그렇다면 불교의 교의 속에서 말하는 난해한 부처의 개념을 가르치기 전에 실재했던 '인간 부처'를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부처의 기본 조건은 두 가지다. 첫째가 수계여부이고 둘째가 교조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아는 것이다. 부처님의 생애를 안다는 것은 불교라는 종교가 어떻게 형성되어 무엇을 가르치며 장구한 역사를 이어 왔는가를 아는 것이기도 하다. 부처님을 모르면서 불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서 그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번에 조계종이 펴낸 종단본 <부처님의 생애>가 부처님과 불교를 쉽게 이해시키고 생활불교를 이루어 가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

아이티 대재앙 남 일 아니다

연일 아이티 대지진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참혹한 현장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고 있노라니 지옥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가난이 죄라는 생각도 떨칠 수 없고 험담 문명을 달린다는 인류의 허상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하루하루 불난 속에서 굶주리며 한데 잠을 자야하는 아이티 국민들의 눈망울에 비치는 모든 것이 지옥도일 것이다.

세계인이 지원단을 파견하고 구호물자를 보내고 있지만 집을 잃고 치안질서가 무너져 버린 곳에서의 생활은 아무래도 불안 그 자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자라면 아이티 관련 뉴스를 보면서 속으로 불보살님의 명호라도 지극히 불러야 할 일이다. 재앙 앞에 선 인간의 참혹상이 곧 나의 일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비의 마음을 내어 그들을 도울 길이 어떤 것인지 궁구해 봐야 할 것이다.

재난을 당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일체는 하나다.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어느 한 곳의 사건이 아니라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중생이 함께 당하고 함께 겪는 공업인 것이다.

조계종과 지구촌공생회 등이 이 공업을 나누는데 앞장선다는 소식이다. 긴급구호기금을 내고 모금 운동을 펼친다는 것이다. 불자들은 이 운동에 참여하길 바란다. 종단이나 단체가 하는 일이라고 하여 한 발 물러설 일이 아니다. 어제의 네가 오늘의 나라를 이치름 아는 불자라면 지금의 아이티 대재앙이 내일 내가 겪을 일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지난 여름 중국 칭다오에서 탈북 소녀 2명을 만났다. 헤심이(가명, 21세), 미령이(가명, 21세)다. 헤심이는 이미 탈북 경력이 두 번이다. 조선 쪽 교포 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녀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헤심이는 첫 번째 탈북 후 한 달만에 중국 공안에 잡혀 북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북으로 넘겨져 국가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비교적 너그러운 분위기 속에서 탈북 경로, 탈북을 도와 준 이가 있는가 등을 조사받았다. 그리고 조사를 끝내며 보위부 조사가 끝났다고 한다. '앞으로 어디 가서든 불잡히지 말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해라.' 딸 같은 소녀에게 건네는 진심이었다.

해당 지역 관서(경찰서)로 신변이 넘겨지면서는 상황이 바뀌었다. 각목과 가족채적으로 반죽 도록 맞았다. 팔뚝에 남은 상처를 보여주며 헤심이는 씩씩하게 말했다. 보위부는 고급기관이고 세상 형편을 알기 때문에 위로해주었지만 말단 지역관서는 무지막지하다고. 전신에 피멍이 들었지만 속으로 다시 탈북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탈북해서 두만강 접경 지역에 있을 때는 북한에 있는 아버지와 전화 통화도 했다. 마을에 휴대전화를 몰래 가진 이가 딱 한 사람 있는데 약속된 날짜에 마을 뒷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중국과

통화가 됐다. 그러나 칭다오에 있는 지금은 통화를 할 수 없다. 아니 아예 연락하려고 하지 않는다. 굶은일을 마다않고 어렵게 돈을 벌어서 아버지에게 보냈는데 술타령으로 방진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남자 친구가 있다고 물었더니, '그만 거일 없습네다. 남의 땅에서 힘들게 돈 벌어서 남자에 게 빼앗기 싫습네다'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꽃다운 스물 살 처녀의 결연한 각오가 내겐 서럽게 들렸다.



이우상

소설가 · 동국대 문학과 겸임교수

불자 세상보기

탈북소녀의 '팔뚝'

헤심이는 고향을 떠나온지 2년이 넘었지만 미령이는 탈북한 지 겨우 석 달밖에 되지 않아 말이 없고 경계심이 자욱하다. 묻는 말에 마치못해 대답할 뿐이다. 조국과 가족을 버리고 대책 없이 중국땅에 던져진 두려움을 수습하기에 벅차 보인다.

보호하고 있는 교포와 함께 두 소녀를 데리고 관광지 구경을 갔다. 거기서도 헤심이의 능력이 발휘되었다. 중국에서는 다른 물가에 비해 모든 입장료가 무척 비싸다. 헤심이는 입장권을 끊지

말고 물레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즉 개구멍으로 물레 집입하자는 것이었다. 자기가 길을 안다는 것이다. 새로운 문화체험(?) 삼아 그녀의 안내에 따랐다. 절약한 입장료로 음식을 사먹으며 헤심이는 운동선수처럼 알몸을 보이며 팔뚝 자랑을 했다. 굵고 튼튼한 팔뚝이다. 두들겨 맞은 상처 자국은 있지만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의지의 팔뚝이다. 북한에 있을 때 팔뚝이 상점해서 뼈가 앙상했는데 지금은 너무 잘 먹고 살아서 이렇게 통통하다고 과시한다. 그녀들을 도와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나그네는 푸짐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자괴감을 달랬다.

맘씨 좋은 교포의 도움으로 그려져서 살고 있지만 두 소녀는 돌아갈 곳이 없다. 북한으로는 죽어도 가기 싫고 한국은 너무나 멀고 아득한 추상이다. 한껏 멋을 부리고 천진난만을 마음껏 누려야 할 나이에 그들은 애늬은이가 되어버렸다.

하늘의 달은 천 개의 강을 꿰고서 비추건만 그녀들을 비추는 달은 보이지 않는다. 남의 나라를 떠도는 영혼들이 얼마나 되는 지 통계도 없다. 분명한 것은 우리와 똑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조상을 가진 형제라는 것이다.

우리끼리 지지고 부느라 낭비하는 경비와 에너지를 줄이고 외롭게 살아가는 동포를 위해 써야 한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1월의 테마-새출발

불경에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 인도 어느 왕국에 왕이 나이가 들어도 왕위를 이을 자식이 없어 걱정하던 차에 왕비가 임신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고대하던 자식을 낳을 산일이 다가왔다. 그런데 아쉽게도 왕이 급한 불 일이 있어서 왕국을 떠나지 않으면 안됐다. 왕은 왕비에게 출산을 하면 반드시 그 결과를 즉시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길을 떠났다. 산일이 되어 왕비는 그렇게 바라던 왕자를 생산했다. 왕비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바로 왕에게 사신을 파견했다. 왕에게 도착한 사신이 급히 왕을 뵈고 아뢰었다. "왕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왕비께서 왕자를 생산하셨습니다. 경하드립니다." 그러나 왕과 해아할 왕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사신은 다시 아뢰었다. "왕이시여! 왕자가 탄생하셨습니다. 경하드립니다." 그래도 왕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사신은 재삼, "왕이시여 왕비께서 왕자를 생산하셨습니다. 경하드립니다."라고 아뢰었으나 역시 묵

"자꾸자꾸 듣고 싶은 말"

묵부답이었다. 이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신하가 왕에게 물었다. "왕이시여 이 반가운 소식에 어찌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까." 이에 비로소 왕이 말하기를, "반가운 말은 자꾸 듣고 싶으니까."

왕에게 왕자가 탄생했다는 말은 한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싶은 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고대하던 왕자가 태어났다고 아뢰니, 더 듣고 싶어서 대답을 알고 있는노라는 왕의 심중은 누구에게나 공감이 간다.

새해가 시작됐다. 올해에는 이런 자꾸 듣고 싶은 소식을 들을 수는 없을까. 요새 마스크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은 정말 자꾸 듣고 싶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 아이티 강진의 비참한 소식들, 국내에는 세종시를 둘러싼 갈등 소식, 한파 소식, 구제역 소식, 각종 범죄소식 등. 이런 오락약세에서나 들릴법한 소식을 제발 듣지 않을 수는 없을까?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체의 고난을 칠난(七難) 삼독(三毒) 이구왕원(二求兩願)의 세 부류로 말하고 있다. 이 중에 물난리, 불난리, 바람, 강도, 감옥살이, 원수 도적을 만남, 악귀를 만남 등 몸으로 체험하는 이상의 일곱 가지를 칠난이라고 한다. 또한 탐내고 화내

고 어리석음의 정신적인 고통을 삼독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정에서 누구나 바라는 바, 딸과 아들 자식을 갖고자 하는 바람을 이구왕원이라 한다. 이런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 경에서는 이런 고난에 빠졌을 때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항상 바른 생각으로 공경하고, 예배 공양하라"고 한다.

이를 사회에 적용하면, 일심 공경 예배 공양이라는 키워드(key words)를 얻을 수 있다. 개인과 사회와 국가 세계가 한 마음[一心]으로 나아간다면 다통과 전쟁은 사라지고 어떤 고난이든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어렵지만 상태를 배려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보다 쉬운 일이요, 상대를 공경하기는 어렵지만 상대가 필요한 것을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는 쉽다.

올해에는 불교계는 물론 사회 곳곳에서 자꾸 자꾸 들어도 반가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기를 고대해 본다.



이기운

연구교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현불만평 박구원

IT강국에 맞게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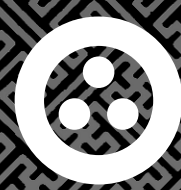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 www.hyunbul.com
FAX (02)737-0696 : www.buddhanews.com
광고국 (02)2004-8213-7 : www.buddhapia.com
FAX (02)737-0696 :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구지사 : (053)768-8008
지사안내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2010학년도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모집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서는 2010학년도 불교대학·불교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동국대학교·중앙승가대학 등에서 강의하시는 스님과 교수님들을 모시고, 체계적으로 불교를 공부하여 수행과 실천을 하는 불자로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불교대학

*특전 - 조계종 종단에서 실시하는 포교사 고시 응시자격 부여(졸업생에 한함)
- 매학기 성적우수 및 신행봉사 관련 포상

교육과정(2년 4학기제)

1학년 1학기 : 불교의 이해, 불교사, 불교문화 2학기 : 아함경, 대승불교, 조계종사
2학년 1학기 : 금강경, 불교사회복지, 육조단경과 선사상성립 2학기 : 화엄경, 포교방법론, 불교 문화 특강

* 불교 문화 특강(2학년2학기) - 동서문화의 교류, 불교와 환경, 불교와 사회, 웰다잉 등 4학 2

모집분야

주간반 : 월·화 오전 10:30~12:30 / 모집정원 60명
야간반 : 월·화 오후 7:00~9:00 / 모집정원 60명
토요반 : 토요일 오후 3:00~6:00 / 모집정원 60명

입시요강

응시자격 : 조계종 사찰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 이수자 및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조계종 신도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기본교육 수료증 사본 1부

등록금

40만원(한 학기당) ※교재비 별도

불교대학원

교육과정(2년 4학기제)

1학기 : 선사상연구, 비교종교학 2학기 : 중관사상, 현대사상과 불교
3학기 : 유식학, 한국불교사상 4학기 : 법화사상, 불교원전강독

모집분야

주간반 : 월요일 오전 10:00~13:00 / 모집정원 40명
야간반 : 월요일 오후 7:00~10:00 / 모집정원 40명
토요반 : 토요일 오후 3:00~6:00 / 모집정원 40명

입시요강

응시자격 : 조계종 사찰 신도
조계종 1년제 이상 불교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일한 학력 이수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조계종 신도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불교대학 졸업증 사본 1부

등록금

45만원(한 학기당) ※교재비 별도

*할인혜택 (대학·대학원 동일) : 가족할인 / 국가유공자 / 장애인(3급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고령자(65세이상, 1946년 이전 출생자) / 재입학자(포교원 인가 불교대학 졸업자)

원서배부 조계사 불교대학 건물 1층 및 조계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www.jogyesa.org) 면접 추후 공지 입학식 3월 7일(일) 오후 3시 개강일 주·야간-3월8일(월) / 토요일-3월 13일(토) 접수기간 2월 28일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교무국 전화 02)720-1390 팩스 02)720-1391